

# 진지한 시각 돋보이는 만화연구서

역사 · 인물 · 매체경제학적 분석까지 다양한 접근

만화예술과 산업을 진지한 시각으로 다룬 연구서들이 활발하게 출간되고 있다. 현재 활동중인 만화작가 13명을 선정해 대담과 대표작을 한데 엮은 《우리 만화 가까이 보기》(만화평론가협회 엮음, 눈빛)와 '만화산업의 매체경제학'이라는 부제의 본격연구서 《한국만화산업연구》(한창완 지음, 글논그림밭), '열화마당미술문고' 시리즈로 나란히 나온 《한국만화의 선구자들》(박재동 외 지음)과 《한국만화의 역사》(최열 지음) 등은, 이제 만화가 문화의 한 영역으로서 당당하게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문적인 저작들이다.

## 만화에 대한 진솔한 애정 토로

《우리 만화 가까이 보기》에 수록된 13인의 만화작가는 김수정, 김형배, 박재동, 백성민, 오세영, 윤승운, 이두호, 이용배, 이현세, 이희재, 최정현, 허영만, 황미나 등. 꼭대원, 김이랑, 박인하, 백정숙, 정준영, 최석태, 백문수 등 만화평론가협회에 소속된 만화평론가들이 작품세계를 해설하고 대담 내용을 정리했다.

지난 94년 출간된 《만화! 내 사랑》(박재동 지음, 지인)은 제목에서 '내 사랑!'이라고 고백할 만큼 진지한 만화에 대한 애정이 감동을 준 책이었다. 작가로서 만화에 대해 갖는 사랑은 《우리 만화 가까이 보기》에서도 진솔하게 드러나는데,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해 만화에 대한 열정 하나로 오늘에 이른 이들이 털어놓는 '넷이야기'들은 인상적이다. 만화가 지하문화·지문문화로 매도됐던 시절 어린이 달인 오월만 되면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다는 김수정씨나, 한 장에 100원, 90원씩을 받고 애니메이션을 그렸다는 이용배씨의 고백은 우리 만화계의 열악했던 현실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어려움들을 짚어보게 한다.

《한국만화산업연구》는 "그러한 국내 만화산업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만화산업의 시장구조, 시장행위, 정부정책, 시장성, 정책적 대안제시 등을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고찰한 책이다.

한국의 만화산업은 대본소 구조, 그로 인해 파생된 만화공장 시스템, 암시장의 불법 복제 만화 등의 문제로 시장실패를 거듭해왔다. 또 애니메이션 시장은 예술성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일체의 국가적 지원이나 혜택 없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수주받은 하청 제작

**만화예술과 산업을 진지한 시각으로 다룬 연구서들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출간되고 있다. 우리나라 만화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개괄한 연구서, 만화 선각자들의 삶과 작품세계를 작가별로 정리한 책, 만화산업구조를 체계적·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서 등은 이제 만화가 당당하게 문화의 한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격적인 저작들이다.**

에 주력하고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해왔다. 이 책은 그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씌어졌다. 우리나라의 만화산업구조를 이론화해 공개하고, 그 구조 안의 행위 유형들을 '밖으로 끌어내' 영세성의 악순환을 타파하고자 한 것. 출판만화로부터 애니메이션, 관련 부수산업으로 연계되는 팬시산업과 캐릭터 산업, 전자오락게임산업, 테마파크산업까지 전반적인 국내 현황을 다루고 있다.

## 앞선 시대 선각자들 삶 조명

한편 열화당 미술문고 시리즈로 나온 《한국만화의 선구자들》은 "어렸을 적 우리들에게 삶을 가르쳐주고 꿈을 나누어주던 만화가들, 우리 만화사의 초반부를 장식했던 분들"의 희미한 발자취를 복원한 책이다.

책의 첫머리를 여는 선구자는 1909년을 전후해 우리나라 최초의 시사만화가로 활동했던 이도영, 구미나 일본의 방식이 아닌 전통적인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만화 캐릭터들.

나무판화 방식을 사용한 만평을 《대한민보》에 연재했다. 그 뒤로 해방공간과 6·25를 거치며 질긴 생명력으로 《한국일보》 《매일신보》 등에 시사만화를 그린 김구택,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코주부'의 캐릭터로 인기를 누렸던 김용환, 최초의 장편 만화영화 《홍길동》을 제작한 신동현·신동우 형제, 한국 신문시사만화 역사의 증언인 《고바우 영감》의 작가 김성환, 《도전자》를 통해 '독고탁'과 '까치'의 선배격인 전형적 인물 '훈이'를 선보인 박기정, 명작 《엄마 찾아 삼만리》를 남긴 김종래가 이어진다.

'땡이' 문고의 작가로 60년대를 풍미한 임창, 신비의 사나이 《라이파이》로 전국의 어린이와 학생을 매료시켰으며 미국에서 독창적인 활동을 하다가 돌아와 대작 역사물 《대주신제국사》를 펴낸 산호, 류머티스의 고통 속에서 《악동이와 영팔이》라는 맑은 명랑만화를 그린 방영진, 《수호지》 《임궐정》 등을

스포츠지에 연재하며 성인 독자를 끌어들이고 우영, 본격적으로 순정만화가 등장하기 시작한 60년대 중반 최초의 여성 만화작가로 명성을 날린 엄희자의 삶과 작품세계도 차례로 조명돼 있다.

《한국 만화의 선구자》와 나란히 나온 《한국 만화의 역사》는 우리 만화를 통시적 체계로 다룬 최초의 연구서다. 저자인 미술평론가 최열씨는 서문에서 많은 작품들이 흩어지고 사라진 열악한 연구환경을 지적하며 "뒀날 뜬실한 만화 통사를 기약한다"고 쓰고 있으나, 천년 전까지 거슬러올라갔다가 90년대까지 차근차근 훑어내려온 이 책은 흥미와 알맹이를 함께 갖춘 역작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 혹은 '만화의 원형'을 보이는 작품은 10세기 무렵에 제작된 '보명성우도'. 열 칸의 연결된 그림 속에 "동자가 소를 찾아 나서서 마침내 소를 찾아냈으나, 소도 동자도 깨달음의 세계로 사라진다"는 완결된 구조를 매끄럽게 담아내고 있다. 이 만화의 원형은 그후 18세기에 제작된 《의열도》의 네 칸 만화, 《대한민보》에 실린 이도영의 시사만화를 거쳐 오늘에까지 맥을 이어온다.

이 책은 우리나라 만화의 역사를 작품들과 함께 소개하는 것은 물론, 만화이론과 비평의 역사까지 한데 아우르고 있다. 1930년대 김동성과 최영수가 《신동아》 등에 발표한 만화론, 만화가론을 필두로, 70년대 이종현의 《아동만화론》과 80년대 오규원의 《한국만화의 현실》, 이해창의 《한국시사만화사》, 그리고 90년대에 이르러 활기를 띠고 진행되는 만화비평의 양상 등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